

# “추석 극장가 오빠들이 접수한다”



영화 '협상'의 현빈

## ‘물괴’ ‘안시성’ ‘명당’ 사극에 ‘협상’ 가세 현빈·조인성·조승우 등 관객몰이 경쟁

폭염과 함께 뜨거운 여름 성수기를 보낸 극장가가 벌써 추석 준비에 들어갔다. 올해 추석 연휴는 대체휴일을 포함해 닷새(9월 22-26일)를 뒀다. 징검다리인 27-28일에 휴가를 낸다면 가장 열흘간 연휴가 이어진다. 극장가는 추석 전인 9월 13일부터 30일까지 약 1천100만~1천300만 명이 극장을 찾을 것으로 보고 있다. 관객 규모는 지난해 추석 연휴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영화 간 경쟁은 더 치열할 전망이다. 각각 100억~200억 원대 제작비가 투입된 한국영화 대작 4편이 한꺼번에 등판한다. 4편 모두 제작비를 회수하려면 1천500만 명 이상이 극장표를 끊어야 한다. 영화 간 희비가 엇갈릴 수밖에 없다.

◇ 사극 3파전... ‘물괴’ ‘안시성’ ‘명당’=추석 연휴 때는 대체로 사극이 강세였다. 차례를 마치고 부모와 함께 극장을 찾는 가족 관객이 많아서다. ‘광해:왕이 된 남자’(2012년·1232만명), ‘관상’(2013년·913만 명) ‘사도’(2015년·625만 명), ‘밀정’(2016년·750만 명) 등이 추석 때가봉해 최강자 자리에 올랐다. 올해는 무려 3편의 사극이 출시표를 던졌다.

‘물괴’가 9월 13일 가장 먼저 등판하며 ‘안시성’과 ‘명당’이 일주일 뒤인 19일에 동시 개봉한다. 외피는 사극이지만, 색깔은 전혀 다르다. 실제 조선왕조실록에도 ‘개 같은 짐승’, ‘요괴’, ‘물괴’ ‘머리가 돌에 눈이 넷인 암 태지’ 등으로 괴수가 출현한 적이 있음이 기록돼 있다. 김명민, 김인권, 이혜리, 박성웅, 박희순, 최우식 등이 출연한다.

‘안시성’은 올해 최대 화제작 중 하나다. 고구려 시대 20만 당나라 대군에 맞서 안시성 성주 양만춘과 5천 명의 군사들이 88일간 싸워 이긴 안시성 전투를 그린다. 웅장한 전투를 구현하기 위해 각종 첨단 장비가 동원됐고, 보조출연자만 6천500여 명이 참여했다. 전투 장면에 활용된 말은 650필에 달했다. 당나라 갑옷은 168벌, 고구려 갑옷은 248벌을 제작했다.

‘명당’(박희곤 감독)은 땅의 기운을 읽어 운명을 바꾸려는 천재 지관 박재상과 왕이 될 수 있는 천하명당을 차지하려는 이들의 대립과 욕망을 다룬다. 박재상 역을 맡은 조승우와 몰락한 왕족 흥선으로 출연한 지성의 연기 대결에 관심이 쏠린다. 둘 다 연기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배우들이다. 백윤식, 유재명, 문채원, 김성균, 이원근 등 조연들도 탄탄하다. 중장년층의 관심을 끌 만한 소재인데다, 영화 곳곳에 전국 명당의 절경이 등장해 관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것으로 보인다. 120억 원의 제작비가 들어갔다.

◇ 사극 틈새 노리는 ‘협상’ ‘원더풀 고스트’=다음 달 19일 간판을 올리는 ‘협상’(이종석 감독)은 우리나라 최초로 협상가를 전면에 내세운 영화다. 태극에서 사상 최악의 인질극이 발생하고, 제한시간 내 인질범 민태구를 멈추기 위해 협상가 하채운(손예진)은 일당 일대의 협상을 시작한다. 충무로 흥행권 손예진이 협상 전문가 하채운으로, 현빈이 사상 최악의 인질범으로 나와 극한 대립을 보여준다.

‘원더풀 고스트’(조원희 감독)는 추석 시즌 유일한 코미디 영화로 틈새를 노린다. 남에게는 관심이 전혀 없는 유도관장 장수(마동석)에게 정의감 넘치는 경찰 고스트 태진(김영광)이 달라붙어 동네에서 일어나는 사건 해결을 위해 합동수사를 펼치는 내용이다. 마동석 특유의 시원한 액션과 코믹 연기를 볼 수 있다. 최근 ‘너의 결혼식’에서 호연을 펼친 김영광이 고스트로 출연한다. 9월26일 개봉. /연합뉴스



영화 '안시성'의 조인성



## 화순 탄광사건을 아시나요

KBS 광주방송총국 '화순 칸데라...' 내일 방영

KBS 광주방송총국은 오는 29일 밤 10시 KBS 1TV에서 특별 기획 '화순 칸데라 1946(사진)'을 방영한다. 이 다큐멘터리는 질곡의 역사에 묻힌 1946년 화순 탄광 사건을 조명한다. 1946년 8월 15일 화순 너릿재에서 최저 임금제 보장을 외치다 미군에 희생당한 화순 탄광 광부들의 이야기를 다룬다. 미군정기 진정한 해방을 꿈꿨지만 미군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이념적 색채를 뒤집어쓰고 쓰러져 간 민초들의 아픔이 담겼다.

제작진은 당시를 기억하는 이들을 찾기 위해 전국을 찾아 다녔고, 당시 사건을 객관화하기 위해 기존에 공개된 미군 정 보고서 뿐만 아니라, 최근 공개된 보고서를 샅샅이 뒤졌다.

'화순 칸데라 1946'은 화순 탄광 사건을 비롯해 제주 4·3과 여순사건 등에 대해 왜곡된 한국 근현대사를 바로 잡는 일이 시급함을 역설한다. /백희준 기자 bhj@

## 소녀시대 새 유닛 'Oh!GG' 결성

태연·윤아 등 5인조 내달 5일 음원 공개

걸그룹 소녀시대의 새로운 유닛(소그룹) '소녀시대-오!지지'(Oh!GG)가 결성됐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소녀시대-오!지지는 태연, 써니, 효연, 유리, 윤아가 참여한 유닛으로 9월 5일 오후 6시 신곡 2곡이 수록된 싱글을 음원사이트에 공개한다고 27일 밝혔다.

유닛 이름인 소녀시대-오!지지는 감탄사 '오!'와 소녀시대(Girls Generation)의 영문 약자 '지지'가 결합한 것으로 대체로운 스타일의 음악과 매력을 선보이겠다는 의미가 담겼다.

이번 싱글에는 타이틀곡 '몰랐니'(Lil' Touch)와 '섬표'(Fermata)라는 상반된 매력의 두 곡이 수록됐다. /연합뉴스

### TV프로그램 28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SBS/KBC
[6]	00 KBS 뉴스광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아시아게임 하이라이트 아시아	4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어영차 바다야	35 닥터 365 40 나도 엄마야
[9]	30 KBS 뉴스	00 파도야 파도야 40 그녀들의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2018 아시아게임 (양궁)	10 SBS 뉴스 30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한국인의 밥상(재) 50 UHD 한식의 마음(재)	00 러블리 호러블리(재)		00 애니갤러리 30 2018 아시아게임 (양궁/육상)
[12]	00 KBS 뉴스 12	10 영상앨범 산(재) 40 제보자들(재)		
[1]	00 여기는 자카르타 (싱크로, 양궁 세픽타크로)	45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아구 예선 <대한민국·홍콩>	00 프리파라 3 30 뽀뽀모도야 놀자	00 불타는 청춘(재)
[2]			00 2018 아시안게임 (양궁/탁구)	00 뉴스브리핑
[3]				00 고향전문록 스페셜
[4]				
[5]	00 KBS 뉴스 5 30 여기는 자카르타 <축구>	00 살림하는 남자들(재)	40 2018 아시안게임 여자 축구 준결승 <대한민국·일본>	00 SBS 오뉴스 25 KBC 저녁뉴스 40 2018 아시안게임 여자 축구 준결승 <대한민국·일본>
[6]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7]		50 끝까지 사랑		
[8]	25 내일도 맑음	30 글로벌24 55 1 대 100	00 MBC 뉴스데스크 55 휴먼 다크 사람이 좋다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서른이지만 열일곱입니다(재)
[9]	00 KBS 뉴스 9 50 여기는 자카르타 <하키>			
[10]		00 러블리 호러블리	00 사생결단 로맨스	00 서른이지만 열일곱입니다
[11]	20 KBS 뉴스라인 40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하이라이트	10 엄마 아빠는 외계인	10 100분 토론	10 불타는 청춘 1~2부
[12]	30 독립영화관 (B급 매너리)	35 유희열의 스케치북(재)	30 시간	30 나이트 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12:00 EBS 정오뉴스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12:10 행복한 교육세상
06:00 한국기행(재)	13:00 다큐 오늘
06:20 세계테마기행(재)	13:10 경이로운 자연의 세계
07:00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	13:40 뽀치미(재)
07:30 띠띠뽀 띠띠뽀	14:30 미니특공대 x
08:00 당동명 유치원1~2	15:00 마사와 곰 스페셜
08:30 고고다이나 공룡탐험대	15:15 파프리카
08:45 방귀대장 뽀뽀이	15:25 그림 그려줘 루이
09:00 뽀뽀뽀 뽀로로	15:45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 1~2
09:30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즈	16:15 주사위 요정 큐비츄
09:40 메디컬 다크 - 7요일	16:30 방귀대장 뽀뽀이(재)
10:30 한국기행	16:45 당동명 유치원1~2
10:50 최고의 요리비결 <악선 비빔밥>	17:15 마사와 곰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30 띠띠뽀 띠띠뽀(재)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8월 28일 (음 7월 18일 壬辰)	
	36년생 지구력의 정도에 따른 편차가 대단히 크다. 48년생 월신 나온 성과를 거둘 수 있다. 60년생 우연한 계기가 필연으로 연결 되겠다. 72년생 외관의 모습에 흔들리지 말고 둔중하게 대처하자. 84년생 뒷감당할 일까지 염두에 두고 행하라. 행운의 숫자 : 30, 36		42년생 끝까지 주의하라. 54년생 자세와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 66년생 지금 변화를 시도한다면 생산적인 국면으로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 된다. 78년생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깊은 뜻을 깨달을 것이다. 90년생 시작이 반이니 우선 착수해 두고 볼 일이다. 행운의 숫자 : 94, 48
	37년생 불의의 사태를 예견하며 치밀하게 대비하고 있다면 무탈하리라. 49년생 굳이 내색할 필요까지는 없다. 61년생 꼭 준수해야 낭패를 보지 않는다. 73년생 예기치 못한 이로움이 따르리라. 85년생 현태가 불리하니 재빨리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옳다. 행운의 숫자 : 65, 87		43년생 마음먹은 대로 결과물을 날게 될 가능성이 높다. 55년생 수용 한다면 원만해질 수 있겠다. 67년생 목표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희생이 따른다. 79년생 반드시 하나 하나씩 점검해 봐야 할 시기이다. 91년생 평시에 가졌던 의문이 풀리리라. 행운의 숫자 : 85, 77
	38년생 부실한 부분은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 50년생 중독시키기에 미약한 진로에 놓여있다. 62년생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니 불안감을 떨쳐버려도 된다. 74년생 번거롭더라도 자신이 직접 행함이 마땅하다. 86년생 내버려 두고 상관없다. 행운의 숫자 : 97, 35		44년생 대세를 거스르는 것은 매우 불길하다. 56년생 아차하면 손해가 발생한다. 68년생 이루어지고 있다. 80년생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아야만 실체를 파악할 수 있다. 92년생 열 익은 과일의 이치이니 느긋하게 기다릴 줄 알아야겠다. 행운의 숫자 : 51, 93
	39년생 함께하는 이와의 호흡이 중요한 때이다. 51년생 결정적인 시기에 압박했다. 63년생 자신의 속마음을 알아주는 이는 아무도 없을 것이니 말도 못하고 가슴앓이를 하리라. 75년생 회복할 수 있다. 87년생 변화는 새로운 발전을 기억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8, 50		45년생 주저하지 말고 정확한 의미를 표현해야 할 때다. 57년생 지금이라도 당장 철회하는 것이 현명하다. 69년생 요령이 있어야만 능률적이다. 81년생 형세를 이루고 있는 원인을 알게 될 것이다. 93년생 핵심을 짚어야만 효과가 커진다. 행운의 숫자 : 33, 68
	40년생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전환되는 성국이다. 52년생 무의식적인 실수가 판국을 망칠 수도 있다. 64년생 생 오래 가지는 못 할 것이니 지켜보고 있으면 된다. 76년생 기대에 부응해야 하느니라. 88년생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자세가 중요하다. 행운의 숫자 : 87, 52		34년생 지나치다만 부족함만 못하느니라. 46년생 가장 일반적인 것이 무탈하리라. 58년생 안정을 구가하는 평안함이 보인다. 70년생 실적이 쌓이고 성과가 드러나게 되는 시기이다. 82년생 추구한다면 반드시 소기의 성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6, 25
	41년생 한 번에 한정된 것이니 확대 해석할 필요 없다. 53년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65년생 궁금해 왔던 것에 대한 실마리를 찾게 된다. 77년생 소극적으로 임한다면 찬스를 놓치게 된다. 89년생 폭이 넓어지고 정도가 깊어지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행운의 숫자 : 13, 58		35년생 가는 것을 붙잡지 말고 오는 것을 막으려 말라. 47년생 바람 앞의 촛불이요, 폭풍전야와도 같다. 59년생 구비 요건부터 갖춰 놓고 불일이다. 71년생 판단의 오류가 있기가 쉽다. 83년생 마음에 내키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전환하라. 행운의 숫자 : 71, 98